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 관계 분석: 제주도 관광권역을 중심으로*

정승훈**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실증분석
- V.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17일간)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주도 읍면동에 설문을 배포하여 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총 643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5대 권역중 북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은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이 높다고 인식할 때 지지도가 증가하고, 비용이

*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13)의 지역주민 의견조사 자료를 관광권역별로 재분석하여 작성한 논문임.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높을 때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기존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부권역과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관광권역, 관광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도.

I. 서론

제주도는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지정(2010년) 등 자연자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 이후 관광산업의 고도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한 제도적 특례로 중국인 노비자 시행(2008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2010년), 섬 관광목적지로서의 제주도의 인지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년도 이후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제주지역에 중국 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개발의 시작, 진행,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과 지지도는 관광목적지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는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유치, 관광개발사업의 성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¹⁾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나 지지도는 지역사

1) 박영아, 「도보여행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제주 올레길 개발지지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에착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2), 한국관광학회, 2012, 160쪽.

회의 관광개발의 정도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²⁾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관광개발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³⁾ 관광분야에서 특정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것은 관광개발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관광개발단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변화를 평가하고,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권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관광권역별로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향후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주지역 관광권역 설정

권역은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인간생활의 공간적 범위를 발견하여

-
- 2) 조광익·김남조,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한국관광학회, 2002, 45쪽.
 - 3) 고계성·이영진·고미영, 「제주도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지도 관계분석-편의과 비용차원 관점 허용-」, 『관광학연구』 35(9), 한국관광학회, 2011.
 - 4) Ko, D. W. & Stewart, W. 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idents' attitudes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3, 2002.

인간생활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합리적으로 적정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⁵⁾ 관광권역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관리, 보전하고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공간단위이다.⁶⁾ 권역의 설정방법은 크게 고정형 권역(bounded region)과 비고정형 권역(unbounded region) 설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정형 권역은 계획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는 계획권역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권역 설정은 고정형 권역 설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⁷⁾ 관광권역은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보전 등을 위한 관광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이며, 권역 설정을 통해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⁸⁾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권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년-2011년)'에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제주시권역, 서귀포시권역, 남제주군권역, 북제주군권역, 한라산권역 등 5대 관광권역으로 설정하고, 9개 소권으로 설정하였다.⁹⁾ 그러나 기존 권역 설정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며, 관광시설, 관광지 등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법정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14년-2021년)'에서는 관광권역을 지역 특성 및 행정권 유지, 관광자원 특성, 교통권 및 관광객 이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6대 권역(북부권역, 동부권역, 남동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 한라산권역)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5) 이장춘, 「통일시 관광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6, 한국관광학회, 1992, 187쪽.

6) 김윤영·신용석, 「대안적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으로서의 네트워크형 관광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1(3), 서울연구원, 2010, 125-126쪽.

7) 전경구·조덕호,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지역생활권의 권역설정과 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의 정책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10-11쪽.

8) 심인보, 「관광권역설정 및 권역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전복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4(2),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9)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보고서, 2003.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라산권을 제외하고 다음 <표 1>과 같이 5대 권역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 제주지역의 5대 권역 설정 내용

권역	행정구역
북부권역	애월읍, 이호동, 도두동, 외도동, 연동, 노형동, 일도2동, 이도2동, 아라동, 오라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동부권역	봉개동, 화북동, 삼양동,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남동부권역	표선면, 남원읍, 영천동, 효돈동, 송산동
남서부권역	중양동, 천지동, 정방동, 서홍동, 동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안덕면
서부권역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연구보고서, 2013, 286쪽.

2.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지지도 관계

관광영향이란 관광개발이나 관광객-지역주민 간 조우(遭遇) 등에 의한 유·무형의 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관광현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¹⁰⁾ 관광영향은 실질적인 관광영향과 지각된 관광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은 관광개발 대상지의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의 진행단계에 따라 받아들이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¹⁾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또는 관광개발 영향 인식에 대해 연구자들에 따라 지각(perceptions), 태도(attitudes), 의견(opinions), 반응(reaction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¹²⁾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관광리조트를 개발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관광

10) 윤설민·박창규·이충기,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광영향, 혜택 및 지지도 간 영향관계 연구 - 지역주민의 사전-사후조사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37(9), 한국관광학회, 2013, 209쪽.

11) 조배행·최영희·김동희,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5),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427쪽.

12) Sharpley, R, "Host perceptions of tourism: A review of the research", *Tourism management* 42, 2014.

개발에의 직접적 참여와 지지도는 관광개발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³⁾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관광개발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여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을 견인하고, 더 큰 지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¹⁴⁾ 다시 말하면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인식은 미래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지지도, 직접적 참여와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⁵⁾ 다만, 관광개발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구분은 인위적이고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¹⁶⁾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된 영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등의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각 영향차원이 긍정적·부정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¹⁷⁾ 이와 관련하여 윤설민·박창규·이충기(2013)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그 대상에 따라 관광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관광영향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 분석 방법의 접근은 다양한 관광요소와 지지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고 하였다.¹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에 미치는 변수들은 외적인 요소로 관광개발의 정도와 단계, 관광·관광객의 성격과 유형, 관광개발의 밀도, 계절성, 관광목적지의 개발단계 등이 있으며, 내적인 요소로는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

13) Styliadis, D., Biran, A., Sit, J., & Szivas, E. M.,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residents' place image and perceived tourism impacts", *Tourism Management* 45, 2014.

14) Prayag, G., Hosany, S., Nunkoo, R., & Alders, T., "London residents' support for the 2012 Olympic Games: the mediating effect of overall attitude", *Tourism Management* 36, 2013.

15) 양승필,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영향요인, 지각된 혜택, 개발 지지도, 참여의도간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7(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16) Ap, J. & Crompton, J. I.,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998.

17) Chen, C. F., & Chen, P. C., "Resident attitudes toward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Geographies* 12(4), 2010.

18) 윤설민·박창규·이충기, 앞의 논문.

존도,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구역과의 거리, 관광객들과의 접촉 또는 상호작용, 개인의 가치, 사회적 지위,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등이 있다.¹⁹⁾

한편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나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은 단일차원(개발태도, 개발지지, 개발지원 등)으로 구분한 연구와 2차원(개발태도, 개발필요, 개발효과, 개발지지, 개발효과 인식, 추가 관광개발, 개발관리 필요성, 지역의 미래 등)으로 구분한 연구로 대별된다.²⁰⁾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관광개발의 영향 인식과 지지도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지지도는 낮아진다.²¹⁾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관광영향 인식이 지지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관광영향 인식과 지지도의 관계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²²⁾

제주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관광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제주도내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영향 인식과 태도나 지지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특정 지역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광익·김남조(2002)는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편익이 클수록 사회적 비용이 작을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

19) Sharpley, R, 앞의 논문.

20) 장준호,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태도 차이 연구 -인근·비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7(3),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340쪽.

21) 장준호, 앞의 논문. 고계성·이영진·고미영, 앞의 논문. 윤지현·이환봉,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민의 관광개발 태도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2(2), 관광경영학회, 2008.

22) 김수성·이충기·한지훈·이승곤,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카지노 영향·혜택·지지도간 분석」 21(3), 『관광연구저널』, 2007. MaCool, S. F. & Martin, S. R,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1994. 고계성·이영진·고미영, 앞의 논문, 141쪽에서 재인용.

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관광개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적게 인식한다고 하였다.²³⁾

Ko & Stewart(2002)는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과 태도와 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민 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은 지각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관광개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²⁴⁾

김의근(2004)은 중문관광단지과 성산포관광단지가 입지하거나 개발예정인 중문동·성산읍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중문동 지역주민들이 성산읍 지역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으며, 긍정적·부정적 경제적 영향인식,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후석(2004)은 미니시리즈 올인 촬영장 개발 이전에 섭지코지 인근 지역주민(신양리)를 대상으로 한 관광영향 지각이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경제향상요인, 환경악화요인, 사회갈등요인 모두가 지지여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경제향상요인이 주민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²⁶⁾

양성수·허향진·서용건(2009)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연구에서,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적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은 김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관광개발에 대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지지도

23) 조광익·김남조, 앞의 논문.

24) Ko, D. W. & Stewart, W. P, 앞의 논문.

25) 김의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중문관광단지과 성산포관광단지를 중심으로 -」, 『외식경영연구』 7(1), 외식경영학회, 2004.

26) 이후석,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의 관계 분석: 미니시리즈 올인 촬영지 섭지코지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28(3), 한국관광학회, 2004.

27) 양성수·허향진·서용건,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4), 한국관광연구학회, 2009.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해양관광개발시 편익이 높다고 인식하고 비용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주민의 지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관광영향 인식과 태도, 지지도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과 대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주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 지역상황(경제상황, 관광개발 정도 등), 연구 대상과 지역 등에 따라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태도, 지지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긍정적·부정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권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관광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1. 북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2. 동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3. 남동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4. 남서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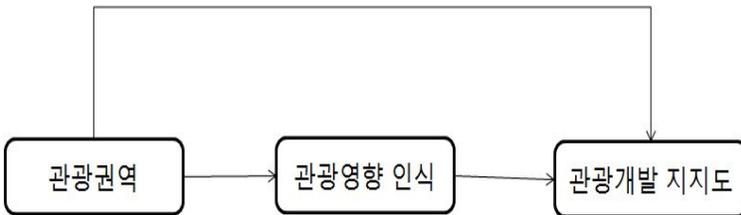
하위가설 2-5.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고계성·이영진·고미영, 앞의 논문.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개발 영향요인인 경제적·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가 관광권역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광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 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경제적 영향 10문항, 사회·문화적 영향 10문항, 환경적 영향 9문항, 관광개발 지지도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광영향요인은 Ko & Stewart(2002), 조광익·김남조(2002), 양성수·허향진·서용건(2009),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장준호(2012)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관광개발 지지도는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장준호(201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지역은 적극적으로 관광개발 지지, 우리지역의 중요한 수입원, 미래 관광개발에 따른 기대감,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음으로 구성하였다.

관광영향과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측정방법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매우 그렇다’는 5로 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및 측정 항목

조사내용	측정변수	주요 선행연구자	측정척도
관광영향	긍정적·부정적 경제, 사회·문화, 환경 영향 항목 29개 항목	Ko & Stewart(2002), 조광익·김남조(2002), 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등	Likert 5점 척도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개발 지지도관련 4개 항목	고계성·이영진·고미영 (2011), 장준호(2012) 등	Likert 5점 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지, 거주권역, 직책		명목척도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17일간)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주도 읍면지역의 리별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리장,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3부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동지역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통장, 동주민 등을 대상으로 2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서지역인 한림읍 비양리,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가파리·마라리는 제외하여 총 1,097부(제주시 635부, 서귀포시 462부)를 배포하였으며, 651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의 배포와 수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읍면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본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와 공문을 함께 발송하여 우편 또는 행정배낭으로 수거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8부)를 제외한 총 643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관광개발 영향요인들과 지지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광개발 영향요인과 지지도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총 643부의 설문 중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367명(57.1%), 서귀포시 276명(42.9%)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 224명(34.8%), 동부권역 109명(17.0%), 남동부권역 66명(10.3%), 남서부권역 141명(21.9%), 서부권역 103명(16.0%)로 조사되었다. 직책은 주민자치위원 226명(35.1%), 리장 111명(17.3%), 주민자치위원장 27명(4.2%), 일반 지역주민 279명(43.4%)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
거주지역	제주시	367	57.1
	서귀포시	276	42.9
거주권역	북부권역	224	34.8%
	동부권역	109	17.0%
	남동부 권역	66	10.3%
	남서부 권역	141	21.9%
	서부권역	103	16.0%
직책	주민자치위원	226	35.1%
	리장	111	17.3%
	주민자치위원장	27	4.2
	기타(일반 지역주민)	279	43.4%
합계		643	100%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 항목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

지역주민의 제주도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한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편익·비용 구성개념으로 분석됐다. 6개의 요인은 ‘긍정적 경제적 영향(23.27%)’,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21.17%)’,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6.50%)’, ‘부정적 환경적 영향(5.25%)’, ‘부정적 경제적 영향(3.86%)’, ‘긍정적 환경적 영향(3.50)’으로 추출되었다. 상관관계 값들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KMO값은 .893, Barlett의 구형성은 9602.154(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6개의 요인 모두 고유치가 1이상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63.54%로 6개의 요인으로 구성했을 때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영향인식 측정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과 측정항목	추출된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고유치	요인 설명력 (%)	항목 재거지 알파계수	신뢰도 알파 계수
요인1: 긍정적 경제적 영향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도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지역민의 고용창출(취업)에 도움 지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농수산 특산물 개발에 도움 지역 공공부문 투자가 활성화	.782 .731 .731 .762 .575 .519	.859 .832 .827 .818 .656 .544	6.749	23.27	.869 .874 .872 .864 .885 .896	.896
요인2: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도둑, 강도, 폭력 등 범죄 발생 증가 사생활 침해가 증가 도박 등 환탕주의가 성행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증가	.723 .764 .689 .636 .393	.813 .809 .773 .714 .524	6.138	21.17	.801 .789 .806 .820 .867	.850
요인3: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축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 증가 지역의 전통문화, 유적 발굴에 도움 주민의 여가·레크리에이션 기회 증가 관광객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게됨 지역의 공공서비스(의료, 행정)가 개선	.644 .597 .581 .603 .480	.769 .717 .681 .603 .589	1.886	6.50	.775 .769 .763 .758 .799	.811
요인4: 부정적 환경적 영향 지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지역의 특성과 경관이 훼손 지역의 자연환경이 개인에게 독점 지역내 쓰레기와 소음 등 환경 오염 토지개발 및 건축 규제가 심해짐	.787 .752 .599 .568 .386	.826 .816 .672 .595 .503	1.521	5.25	.780 .788 .814 .810 .837	.839

요인5: 부정적 경제적 영향 물가상승과 주거비 증가 등 가계비 증가 지가상승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 지역민의 과소비 경향을 가져오게함 관광수입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됨	.793 .615 .631 .503	.859 .746 .723 .544	1.118	3.86	.652 .752 .710 .786	.785
요인6: 긍정적 환경적 영향 도로, 다리 등 시설이 정비되고 향상 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기반시설이 향상 지역의 매력이나 이미지가 좋아짐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됨	.781 .748 .523 .748	.838 .815 .474 .452	1.016	3.50	.689 .693 .728 .767	.776

주) KMO (Kaiser_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93; Barlett의 구형성: 9602.154 (p = .000); 전체설명력: 63.541; 전체 29 항목에 대한 신뢰도 알파계수: .869.

2)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위해 4개 항목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는 1개의 구성개념으로 단일차원 요인, 즉 ‘관광개발 지지도’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63.59%의 비율을 나타냈다. KMO값은 .737, Barlett의 구형성은 883.164(p=.000)로 각 측정항목들과 요인의 상관관계는 약 73.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유치는 2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63.59%로 1개의 요인으로 구성했을 때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관광개발 지지도 측정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과 측정항목	추출된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고유치	요인 설명력 (%)	평균값 (Mean)	항목 제거시 알파계수	신뢰도 알파계수
요인1: 관광개발 지지도			2.544	63.59	3.66		.807
현재 우리지역은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을 지지함	.647	.843			3.86	.752	
현재 관광으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음	.711	.825			3.73	.718	
현재 관광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수입원임	.505	.805			3.26	.806	
앞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음	.680	.710			3.81	.727	

주) KMO (Kaiser_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737; Barlett의 구형성: 883.164 (p = .000); 전체설명력: 63.588

3.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차이 분석

지역주민의 권역별 거주지에 따라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지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결과,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은 부분 채택 되었다.

관광영향 인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환경적 영향 요인들에서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북부권역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남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차이 분석

요인과 측정항목	북부권역 (n=224)	동부권역 (n=109)	남동부권역 (n=66)	남서부권역 (n=141)	서부권역 (n=103)	전체 (n=643)	F값
긍정적 경제적 영향	3.19b	3.15b	3.46a	3.35ab	3.21b	3.25	3.213**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3.39a	3.23a	3.33a	3.27a	3.18b	3.30	2.472**
긍정적 환경적 영향	3.56	3.45	3.58	3.54	3.44	3.52	1.145
부정적 경제적 영향	3.14b	3.16b	3.26ab	3.38a	3.15b	3.21	2.851*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2.84	3.03	2.96	2.91	2.88	2.91	1.295
부정적 환경적 영향	2.86b	3.02a	3.03a	3.09a	3.01a	2.98	2.339**

주) * $p < .10$; ** $p < .05$; a > b는 분산분석에 대한 Tukey의 사후다중범위 검증(post-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결과임.

4. 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발 지지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일곱 개의 요인들을 대상으로 요인 변수들 간의 상관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긍정적(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인식 요인들만이 관광개발 지지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또한 관광개발 지지도와 관련성을 제외하고 관광개발에 대한 여섯 개의 영향 인식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제주도 지역주민의 긍정적 경제적 영향인식은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인식(.599),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437), 그리고 부정적 환경 영향 인식(-.108)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긍정적 사회적 영향 인식은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613)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145)과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116)과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경제적 영향인식은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인식(.480)과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470)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108에서 .666 사이에 있어 이들 요인들 간에 적도의 타당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 7> 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발 지지도 측정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긍정적 경제적 영향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긍정적 환경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환경적 영향	관광개발 지지도
긍정적 경제적 영향	1.000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599***	1.000					
긍정적 환경적 영향	.437***	.613***	1.000				
부정적 경제적 영향	.067	.109**	.145***	1.000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045	.047	.006	.480***	1.000		
부정적 환경적 영향	-.108**	-.076*	-.116**	.470***	.666***	1.000	
관광개발 지지도	.364***	.363***	.360***	.005	-.024	-.042	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5.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영향 인식요인(긍정적 경제적 영향,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긍정적 환경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환경적 영향)을 독립변수로, 관광개발 지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 모두 부분채택 되었다.

북부권역인 경우 F값이 5.387($p < 0.001$)고, 설명력(수정된 R²)이 1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 < 0.001$ 과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북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부권역인 경우 F값이 7.171($p < 0.001$)고, 설명력(수정된 R²)이 2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 < 0.05$, $p < 0.001$, $p < 0.05$,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들이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 지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환경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이 다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향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동부권역인 경우 F값이 5.082($p < 0.001$)고, 설명력(수정된 R²)이 2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 지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관광개발로 인한 부정적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향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남서부권역인 경우 F값이 16.005($p < 0.01$)고, 설명력(수정된 R²)이 3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 < 0.05$, $p < 0.001$,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남서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남동부권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인 경우 F값이 4.389($p < 0.001$)고, 설명력(수정된 R²)이 1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관광권역 독립변수	북부권역 (n=224)	동부권역 (n=109)	남동부권역 (n=66)	남서부권역 (n=141)	서부권역 (n=103)
(상수)					
긍정적 경제 적영향	2.162 (5.930)***	1.653(3.444)***	1.179(1.671)	1.300(3.226)**	2.259(4.596)***
긍정적	.170(2.120)***	.252(2.346)*	.220(1.677)	.189(2.351)*	.547(3.592)***
사회·문화적영향	.212(2.265)*	.047(0.426)	.208(1.562)	.151(1.600)	-.202(-1.116)
긍정적 환경적영향	.044(0.519)	.367(3.709)***	.142(1.138)	.454(5.372)***	.012(0.077)***
부정적 경제 적영향	-.085(-1.107)	-.269(-2.202)*	-.377(2.755)**	-.162(-2.081)*	.084(0.860)
부정적	.031(0.328)	-.097(-.755)	-.467(-2.880)**	-.125(-1.330)	.147(1.324)
사회·문화적영향	.057(0.623)	.298(2.238)*	.082(0.575)	.132(1.342)	-.160(-1.484)
부정적 환경적영향					
모형요약					
R	.360	.545	.584	.646	.464
R ² (Square)	.130	.297	.341	.417	.215
수정된 R ²	.103	.255	.274	.391	.166
F값	5.387***	7.171***	5.082***	16.005**	4.389***

주1) 권역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첫 번째 계수는 표준화된 베타(Beta) 계수이며 (상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주2) 괄호안의 값은 권역별 지역관광개발 지지도(종속변수)에 대한 각 상수와 독립변수들의 t값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개발이 과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 인식과 지지도를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측정치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긍정적 환경적 영향, 부정적 경제적 영향,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어 선행연구 결과²⁹⁾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9) Ko & Stewart, 앞의 논문. 김의근, 앞의 논문. 윤철민·박창규·이충기, 앞의 논문.

둘째, 관광영향에 대한 권역별 지역주민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권역별로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긍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인식)과 비용(부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인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선면의 경우 해비치호텔과 리조트가 조성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고, 남원읍의 경우 농어촌시설자원이 집중³⁰⁾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고품질 감귤 주산지로서 관광개발과 1차산업과의 연계효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북부권역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북부권역이 제주도의 문화·의료·교육·행정 등의 중심지역으로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문화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적 경제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단지인 중문관광단지가 입지한 남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관광개발이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조성으로 제주도의 전반적인 관광은 활성화되었으나, 지역과 괴리된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발 지지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결과, 긍정적(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인식 요인들만이 관광개발 지지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한다.

넷째,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5대 권역중 북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은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이 높다고 인식할 때 지지도가 증가하고, 비용이 높을 때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기존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부권역과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연구보고서, 2013.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이 다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에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³¹⁾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새롭게 설정된 제주지역 관광권역(대권역)별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지도 정도를 파악했는데 의의가 있으나, 대권역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고, 권역별에 따라 관광영향요인이 개발지지도에 미치는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 등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5개 관광권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소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주민 인식차이와 관광개발 지지도 관계, 향후 추가개발 지지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 Mason, P. & Cheyne, J, "Residents' attitudes to propose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 2000. 김의근, 앞의 논문.

참고문헌

- 고계성·이영진·고미영, 「제주도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지도 관계분석 - 편의과 비용차원 관점 허용 -」, 『관광학연구』 35(9), 한국관광학회, 2011.
- 김수성·이충기·한지훈·이승근,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카지노 영향·혜택·지지도간 분석」, 『관광연구저널』 21(3), 2007.
- 김의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중문관광단지과 성산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 『외식경영연구』 7(1), 외식경영학회, 2004.
- 김윤영·신용석, 「대안적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으로서의 네트워크형 관광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1(3), 서울연구원, 2010.
- 박영아, 「도보여행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제주 올레길 개발지지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애착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36(2), 한국관광학회, 2012.
- 심인보, 「관광권역설정 및 권역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전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4(2),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 양성수·허향진·서용건,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4), 한국관광연구학회, 2009.
- 양승필,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영향요인, 지각된 혜택, 개발 지지도, 참여의도간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7(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 윤철민·박창규·이충기,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광영향, 혜택 및 지지도 간 영향관계 연구 - 지역주민의 사전-사후조사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37(9), 한국관광학회, 2013.
- 윤지현·이환봉,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민의 관광개발 태도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2(2), 관광경영학회, 2008.
- 이장춘, 「통일시 관광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6, 한국관광학회, 1992.
- 이충기·양형은·이재석, 「한·일 간 카지노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지도 비교 분석」, 『관광연구』 26(3),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 이후석,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광개발 태도의 관계 분석: 미니시리즈 올인 촬영지 섭지코지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28(3), 한국관광학회,

2004.

- 장준호,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태도 차이 연구-인근·비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7(3),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 전경구·조덕호,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지역생활권의 권역설정과 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의 정책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한국지역개발학회, 2013.
- 조광익·김남조,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한국관광학회, 2002.
- 조배행·최영희·김동희,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5),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보고서, 20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연구보고서, 2013.
- Ap, J. & Crompton, J. L,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998.
- Chen, C. F., & Chen, P. C, “Resident attitudes toward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Geographies* 12(4), 2010.
- Ko, D. W. & Stewart, W. 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idents' attitudes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3, 2002.
- Mason, P. & Cheyne, J, “Residents' attitudes to propose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 2000.
- MaCool, S. F. & Martin, S. R,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1994.
- Prayag, G., Hosany, S., Nunkoo, R., & Alders, T, “London residents' support for the 2012 Olympic Games: the mediating effect of overall attitude”, *Tourism Management* 36, 2013.
- Sharpley, R, “Host perceptions of tourism: A review of the research”, *Tourism management* 42, 2014.
- Styliadis, D., Biran, A., Sit, J., & Szivas, E. M,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residents' place image and perceived tourism impacts”, *Tourism Management* 45, 2014.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The Case of Tourism Regions in Jeju Island

Chung, Seung-Ho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differences among five tourism regions in Jeju Island using residents'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se variables were influenced on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by the regions. The study was based on a field survey completed by 643 individuals in each of 18 towns/villages in the five regions. Overall, ANOVA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ive regions in Jeju Island in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different relationships in the five regions between residents'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 strategies for tourism development in different tourism regions in Jeju Island may increase residents' support for the development.

Key Words : tourism region,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 Senior Research Fellow, Jeju Development Institute.

교신 : 정승훈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yunhoo@jdi.re.kr)

논문투고일 2014. 08. 31.

심사완료일 2014. 10. 04.

게재확정일 2014. 10. 24.

